



제주 체감안전도 전국 최하위권 굴욕

경찰청 최근 5년 전국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인구대비 5대 범죄·야간 교통사망사고 ‘최고’
가로등 설치비율 전국평균의 절반 수준 그쳐

제주도민의 체감안전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 교통사망사고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도로 대비 가로등 설치 비율은 전국 평균 대비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은 18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약'을 개최했다.

이날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도의회·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과 방법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안전 제주'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이 실시한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에서 제주도는 매년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3년간 제주경찰청, 여성가족연구원, 통계청, 제주연구원 등이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불안을 느끼는 원인으로 가로등 등 방법시설 부족 답변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비율은 제주가 전국 평균 대비 38%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존 도로 대비 가로등 설치 비율은 전국 평균 대비 51% (제주시 62.2%, 서귀포시 37.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어두운 도로로 인한 제주지역 야간 교통사망사고 비율(주간 대비)은 전국 50%를 넘는 52.9%에 달하고 있다. 또 제주지역 전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중 야간 사망사고 비율은 최근 3년간 71.1%로, 전국 평균 61.2% 대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안협의회는 개선 대책으로 5개년으로 걸쳐 단계적으로 제주의 조명 및 방법시설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는 '밝은 제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우선 범죄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성산읍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6개월간 운영하게 된다. 이후 전후 범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치안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제주지역 주요 치안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왔으며 현재 제주도,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2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현석기자

연안해역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최근 제주연안 사고 급증
해경 "갯바위 낚시 주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연안해역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제주 서귀포 중문해수욕장과 삼양 화력발전소에서 물놀이객 사망사고와 갯바위 낚시꾼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40분쯤에도 제주시 추자도 녹른여인근 해상에서 사람이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으며 이에 해경은 헬기·경비정·구조정을 긴급 투입해 구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육상·해상·공중에서 입체적

안전관리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포구 및 위험구역에 대한 순찰 강화 ▷낚시어선·낚시꾼 대상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항공기 이용 연안해역 및 갯바위 예방 순찰 ▷경찰·민간인 합동 순찰대 운영 등을 실시하게 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갯바위 낚시꾼과 물놀이객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안해역 위험예보에는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김현석기자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계획 폐기하라"

대정읍 주민들과 해양환경단체 등이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 대정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와 모슬포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 해양환경단체 핏핑크돌핀스 등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인 생존권 박탈과 국가 지정 해

양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파괴, 해안경관 침해 등 숏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사업 통과만을 목적으로 관련 절차를 밀어붙이며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모두 묵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대정 앞바다 개발사업자의 배불림에 이용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사업자는 손을 떼고 조속히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이날 열린 제376회 임시회에서 일주일간 심사될 예정이다.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제2차 본회의는 24일 열린다. 김현석기자

"제2공항 도민공론화 제주도의회가 나서야" 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

제2공항 강행 저지를 위한 비상도민회의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위해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2공항에 대한 갈등은 현재진행형이지만 국토부는 10월 기본계획 고시 강행만을 외치고 있고 제주도정은 제2공항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제주도의회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김현석기자

제주 중·고생 '편안한 교복' 입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공론화위 권고안 수용
학교규칙 개정 등 추진"

제주 중·고등학생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편안한 교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공론화 1호 의제 '편안한 교복' 정책권고 수용 발표문을 통해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중·고등학생 교복개선'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2019년 말까지 교복 개선을 위한 학교규칙 개정 ▷하복 개선 방향 ▷동복 개선 방향 ▷학생의견 50% 이상 반영 ▷학교 자원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권고안을 제언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결정이 일상의 민주주의와 교육 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특히 제주는 올해 중학교를 시작으로 내년 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복 시대를 열었고, 편안한 교복이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내년에는 대한민국 교육이 한 걸음 더 진전한 희망의 광경을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5일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등 200



이석문 교육감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편안한 교복' 정책 권고 수용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 ▷학칙개정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 ▷교복 개선 편안한 교복 도입 시기 ▷학교별 공론화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편안한 교복 전시회도 함께 진행하고, 다음달 14~16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24~26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지역별 교복 전시회도 진행한다.

또한 학생생활규정 (학교규칙) 제 개정 지원 가능한 우수교원과 교육전문직원들을 중심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학생생활규정 (학교규칙) 검토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온·오프라

인으로 단위학교에 대한 공론화 진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론화의 이해'와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공론화 절차·방법·속의자료' 등이 담긴 '학교 공론화 길라잡이'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 교육감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전국 처음으로 올해부터 출범해 상설 운영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와 도민 참여 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 8월 23일 교복개선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상습사기에 경찰관 폭행 법원 50대 징역 4년 선고

상습적으로 사기를 일삼고 또 체포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습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6시 40분쯤 제주시내 모 해장국 식당에서 업주에게 술을 달라며 욕설을 했다. 이에 업주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갖고 있던 막걸리가 든 비닐봉지로 업주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3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총 2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오씨는 6월 5일 무전취식으로 제주동부경찰서 A지구대 소속 B경사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중범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며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석기자

www.토종흑염소목장.com / www.blackgoat.1939.co.kr

흑염소 체험농장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흑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흑염소 대공연
(매 시간마다)

SNS 래그
매월 추첨
50만원 상당
경품
(사은품증정)

▲ 흑염소 먹이들이 (시간마다 진행)

▲ 흑염소 놀이터 (흑염소는 본능적으로 높은곳에 올라가는것을 좋아함)
현재 3000두 이상 사육

▲ 흑염소 길
오픈기념으로 편백수를 드립니다

피톤치드(자연향균물질)가 뿜어져 나오는 편백숲에서 산책하시면서 힐링과 건강도 챙기세요

토종 흑염소 요리 전문점

흑염소 마루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면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 흑염소탕 / 전골
- 수육 / 육회
- 숯불구이 / 떡갈비

노린내 나지 않는 염소 고기 식당 납품 가능

흑염소 마루 / 예약문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3번길 1-1

T. 064.805.5099

T. 064.764.6678